



WCC 제11차 총회 후속 모임(여성): 감사예배와 토크콘서트

# 그 사랑에 이끌려 한 걸음 더!

2022년 11월 15일(화)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



주최·주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이미지 출처 : 세계교회협의회 WCC

\*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 총회(2013)로부터 제11차 칼스루에 총회(2022)까지 이어짐을 의미합니다.

# Schedule

## 1부 감사예배

14:00-14:30 (30분) WCC 제10차 총회와 11차 총회의 여성 중앙/실행위원, 청년전문위원 (ECHOS Commission on Youth) 축하와 격려 그리고 감사예배

## 2부 토크콘서트

14:30-14:35 (5분) 인사말

14:35-14:50 (15분) WCC 제11차 총회에 다녀와서

14:50-15:00 (10분) WCC 중앙위원회 성명서와 주요 이슈 나눔

15:00-15:15 (15분) 참석자 소개와 인사

15:15-15:20 (5분) 특송 "우린 벗이어라"

15:20-15:40 (20분) 총회 경험 나눔

15:40-16:10 (30분) "한국교회 기독 여성의 역할과 기대" 대화 나눔  
& 평화 인사 "그 사랑에 이끌려 한 걸음 더!" & 촬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ontents

일정표 .....	1
1부 감사예배 .....	3
2부 토크콘서트 .....	5
◆ WCC 제11차 총회에 다녀와서 .....	배현주 목사 6
◆ 여성에 대한 성 착취, 성 학대, 성희롱에 관한 WCC 중앙위원회 성명서 .....	우경아 목사 8
◆ 총대 경험 나눔1 .....	조은아 청년 10
2 .....	이새름 청년 12
◆ 참관 경험 나눔1 .....	최은영 목사 14
2 .....	이은재 청년 17
3 .....	이정규 전도사 19
MEMO .....	21



## 1부 감사예배

인도: 안미정 목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반주: 최규희 목사 (교회협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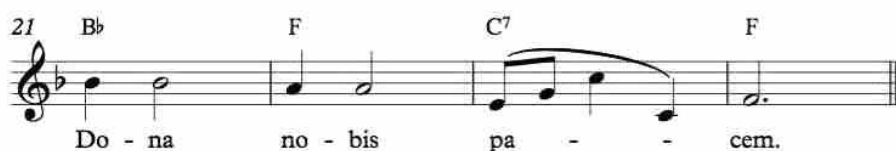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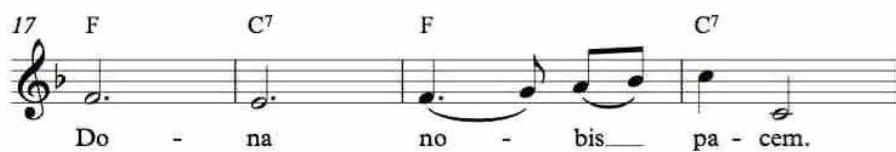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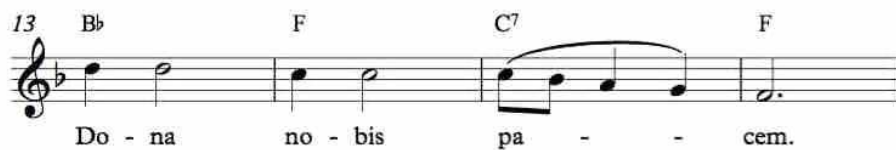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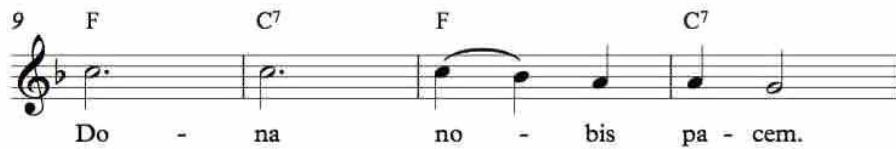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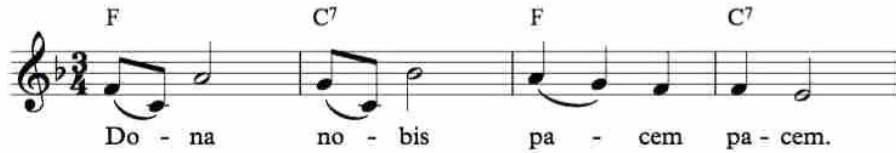
### 예배로의 부름

인 도: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십니다.

함 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요한일서 4장 16절, 새번역)

### 찬송 Dona Nobis Pacem,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1 ritardando*



기도

윤향자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연합회 회장)

말씀나눔

최하은 청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이한빛 청년 (한국YWCA연합회)

**여성시편 134편 하나님의 집을 지켜온 여성들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여, 지금껏 밤낮으로 그 집을 지켜왔던 그대들이여! 그대들의 수고와 땀으로 예배가 이루어져 왔고, 그대들의 봉사과 기도가 그 집을 지탱해 왔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손을 들고 그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세.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함께 하시길!

**여성시편 20편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기도**

차별의 고난을 받는 우리 여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여성에게로 참여의 길이 열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여성들에게 평등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가 여성들의 사회적 공헌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성들의 능력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갖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길 원합니다. 여성들의 바람대로 50%의 여성들이 모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평등하게 참여하게 될 때를 기다리며,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평과 정의의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니, 하나님께서 여성들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그 낮고 낮은 곳에서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정치를 남성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여자는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이나 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힘입어 남성과 평등한 참여의 길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자들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곳곳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당신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묵상)

축사

이홍정 목사 (교회협 총무)

선물전달

민숙희 사제 (교회협 부회장, 성공회 광명교회 관할사제)

‘수고한 이’ 장상 목사, 배현주 목사와 ‘수고할 이’ 김서영 목사에게  
청년전문위원, 이한빛 님에게(WCC, ECHOS Commission of Youth member)

소회 나눔

장상 목사 (WCC 제10차 총회 실행위원, 아시아 의장)

특송

“소중한 꿈” 이수현 님

축도

민숙희 사제

## 2부 토크콘서트

사회: 강은숙 목사 (WCC 제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여성위원)

인사말 최소영 목사 (교회협 여성위원장)

WCC 제11차 총회에 다녀와서 배현주 목사 (WCC 제10차 총회 중앙/실행위원)

여성에 대한 성 착취, 성 학대, 성희롱에 관한 WCC 중앙위원회 성명서  
우경아 목사 (세계교회협의회 선교와 전도국 컨퍼런스 코디네이터)

참석자 소개/ 인사

특송 '우리 벗이어라' 이수현 님

총회 경험 나눔  
총대- 조은아 청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새롬 청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참관자- 최은영 목사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사무총장),  
이은재 청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정규 전도사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화 나눔 한국교회 기독 여성의 역할과 기대에 대하여

평화 인사 '그 사랑에 이끌려 한 걸음 더!'  
\*주변의 참여자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사진 촬영

### <알리는 말씀>

1. 교회협 여성위원회는 위원회 내 'WCC제11차총회준비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사전모임(여성주의 예배)과 후속 모임(토크 콘서트)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 오늘 모임을 위해 마음 모아주신 회원교회와 참여자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3. 생태정의와 회복을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부득이 사용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WCC 제11차 총회에 다녀와서<sup>1)</sup>

배현주 목사 (전 WCC 중앙·실행위원)

본래 2021년으로 예정되었던 WCC 제11차 총회가 팬데믹 때문에 한 해 연기되어 2022년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 칼스루에에서 개최되었다. 과연 팬데믹 기간에 대면 총회가 가능할 것인지 지난 3년간 의구심을 지녔던 WCC 내부 관계자들에게는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조용한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 총회 마지막 날 아그네스 의장은 6월 중앙위원회와 이번 총회가 대면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라고 되뇌었다.

칼스루에 총회는 1968년 스웨덴 옘살라에서 개최되었던 WCC 제4차 총회 이후 54년 만에 유럽에서 다시 개최되는 총회였다. 총회 첫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다. 독일 정치인으로서의 삶의 자리가 반영된 기독교 평신도 리더의 훌륭한 강연이었다. 그는 제11차 총회 로고의 네 가지 구성요소들인 원, 길, 십자가, 비둘기에 대하여 성서적이며 현시대적인 원숙한 성찰을 제공하였다. 그는 이차세계대전 이후 1948년 WCC 제1차 총회가 창설될 때 독일 나치 정권이 행했던 극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독일교회들을 WCC 정식 회원으로 받아주었던 과거에 대하여 진솔한 감사를 표했다. 독일교회는 그 암담했던 시절 본회퍼와 고백교회를 배출한 모체이기도 하다. 본회퍼는 20세기 '에큐메니칼 성인'으로, 그 동지들은 20세기적 사도행전의 인물들로 추앙받고 있다. 이 깨어있는 소수가 함께 이끌었던 신앙운동과 저항운동은, 같은 집단에 속한 대다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독일교회가 세계교회 네트워크의 존경과 신뢰를 잃지 않은 근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서 개최된 이번 총회의 대표적 고뇌가 아닐 수 없었다.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은 푸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공적 저항에 참여한 수백 명의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의 용기를 치하하였다. 이번 총회는 러시아 정교회와 우크라이나 정교회대표들 사이의 불편을 감수한 대화와 만남의 장이 되었다.

칼스루에 총회는 창조절(9월 1일-10월 4일) 기간에 개최되었고, 기후위기와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지구촌에 대한 논의가 압도적이었다. 창조세계의 회복과 기후정의의 과제는 복합적 접근을 요청한다. 이 과제는 생명경제, 어린이와 청년들의 생명권, 원주민, 물, 기후행동(탄소배출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과 반기후정의적 정책에 대한 저항 등), 녹색영성과 공동 기도회 등 다양한 관점과의 연계선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생명경제는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과 불평등의 관점에서 조망된다. 총회를 구성하는 5회의 전체 플레나리, 23개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에큐메니칼 좌담회, 공공 이슈 위원회의 성명서 등은 새로운 도전에 주목하면서 WCC의 지속적인 논의들을 부각시키는 과정이다. 기후위기와 생명경제 이외에도, 전쟁·폭압·평화의 문제(우크라이나, 중동, 한반도, 아르메니아, 서파푸아, 시리아-아람 학살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인종 정의·성정의, 인간의 성, 인권과 기독교 윤리, 건강과 치유, 장애인, 디아코니아, 교회의 일치, 교회의 공적 역할, 타종교와의 연대, 신학교육에서 에큐메니즘의 중요성, 코이노니아를 추구하는 교회의 도덕적 분별의 문제, 정의와 평화의 순례(PJP)의 교훈 등 교회론과 함께 세계 에큐메니칼 신앙운동의 실천적인 주제들이 거의 총망라되고 있다. 에큐메니칼 좌담회들 중 첫 번째 세션 주제는 "선교에 대한 재고: 제국에 저항하는 변혁적 제자들"이었다. 한편 청년, 여성, 장애인, 원주민을 위한 사전대회의 결과가 총회의 다층적 과정에 계속 반영되었다. WCC는 우리가 직면한 과

1) 이 글은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의 '교회와 사회발전 30호'에 게재된 글의 (축약 전) 원본이다

제를 타개해나가기 위해서 청년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화적 변화와 제도적 반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하는 필요성도 노정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150명의 중앙위원이 선출되었다. 한국교회에서는 박도웅 목사(감리교)와 김서영 목사(기장)가 앞으로 12차 총회까지 중앙위원으로 봉사하게 될 예정이다. 의장단도 구성되었다. 독일의 하인리히 베드포드-슈트롬 감독이 의장으로, 자마이카의 머린 라일리 목사와 아르메니아의 비켄 아이카지안 대주교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각 대륙을 대표하는 8명의 회장단도 선출되었다.

칼스루에 총회에는 한국에서 청년 50여명을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숫자는 WCC 제1차 총회부터 제9차 총회까지의 한국인 참석자 전체 숫자보다 많은 수라고 한다. 이번 칼스루에 총회를 일 년 전부터 월1회의 기도회와 행사로 준비해왔던 한국교회의 공동체적 노력의 결실이라고 느껴진다. 한편으로는 네 회원교회들과 NCC가 공적 대표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교회들과 기독교사회선교단체들이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월별 모임을 가져왔다. 이는 칼스루에 총회 준비과정을 통해서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의 재활성화를 지향하는 노력이었고, WCC측은 한국교회의 이러한 적극적인 로컬 이니셔티브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번에 한국교회에서 여러 강사들과 발제자들이 플레나리, 에큐메니칼 좌담회, 다양한 세미나(브루넌과 인카운터) 등에 참여하였다. 한반도 평화협정 캠페인을 벌이는 NCKK, 참여연대 외에도 기환연, 영등포 산업선교회, 고난 함께 등 한국의 여러 에큐메니칼 운동단체들도 부스를 열고 세계 기독교인들과 교류하였다. NCC 여성위원회와 함께 움트다(수도권), 나비(부산 경남지역) 등 여성(청년) 공동체들이 총회 회의장의 커다란 벽면을 장식하게 될 웅대한 조각보를 우편으로 제네바에 보냈을 때, WCC는 따뜻한 에큐메니칼 자매애의 실천에 감동을 받고 기사로 다루었다. 필자는 부산총회에 이어 칼스루에 총회에서도 성경공부를 집필하고 인도할 수 있어서 성서학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 총회 주제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와 함께 강조된 “마음의 에큐메니즘”은 특히 마음의 분단과 상처가 깊은 한반도 컨텍스트에서 앞으로 계속 논의되고 일상에서 소화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총회를 유치한 나라에서 의장이 선출되는 것이 상례라고 한다. 제9차 브라질 총회에서는 브라질 의장이 탄생했고 제11차 독일 총회에서는 독일 의장이 탄생했다. WCC 제10차 한국 총회에서 한국 의장이 선출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뒤늦게 궁금증을 안게 되었다. 이 궁금증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에큐메니칼 운동이 21세기형으로 공동의 인식을 재점검하고 운동론을 재구성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게 되었다. 한편 회원교회들과 NCC 차원에서 총회마다 채택되는 일치 문서와 메시지 등을 비롯하여 세계교회의 연구와 성찰이 담긴 중요한 문서들을 번역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공헌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게 된다.

한반도 평화운동을 위한 한국교회의 주체적 성찰이 깊어져야 한다고 느낀다. 세계교회의 서명을 요청하는 평화협정 캠페인이 한국교회에서는 얼마나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국이 인공지능을 장착한 자율살상무기인 킬러로봇 개발국가로 거명되는 시대에 평화와 군축, AI와 생명경제 문제를 통전적으로 파악하고 인식하는 예언자적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환경오염의 주범인 전쟁과 군사작전을 계속하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는 것은 밀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이다. 기후정의·생태정의·생명경제, 평화와 군축, 그리고 만인의 주체적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삼위일체로 함께 구성되는 새로운 통전적 담론과 지역에큐메니즘을 중시하는 글로벌한 스케일의 21세기형 에큐메니칼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 여성에 대한 성 착취, 성 학대, 성희롱에 관한 WCC 중앙위원회 성명서

2022년 6월 15일~18일 WCC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채택

발표: 우경아 목사 (세계교회협의회 선교와 전도국 컨퍼런스 코디네이터)

“다말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삼하 13:12-13a).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누가 17:2).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세계 각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성 학대의 피해를 규탄하는 성명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 가장 최근인 2018년 WCC 실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는 다양하면서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의 위험과 성폭력으로 인한 결과는 많은 교회와 공동체에서 금기시되어 그들에게 교회가 안전하고 보호받는 장소가 되지 못하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성폭력과 성학대등의 근절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sup>2)</sup>

2011년 WCC가 성직자에 의한 성폭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sup>3)</sup> 과거와 현재 교회와 연관된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범죄 사건에 계속해서 연루됨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감정적·육체적·영적인 안녕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르는 동안 교회는 가해자를 보호하고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성희롱, 성 학대가 교회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분야와 전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돌보는 위임을 받은 지도자들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애통하게 생각한다. 성폭력 범죄는 교회와 교회지도자들이 행동에 나서지 않고,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말과 행동, 정의를 부정하고 침묵 하는 것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고된 성폭력 사건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은폐하려는 집단적 실패는 진실을 은폐하고 학대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성학대와 성착취 행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신학 교육과 구조, 리더십, 의사결정기구 차원에서도 성착취와 성학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성학대와 관련된 피해신고가 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2) (성폭력 및 2018년 노벨평화상에 관한 WCC 실행위원회 성명서에서 발췌, 2018년 11월).

3) WCC는 성직자들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1년 세계기독교학생연맹과 함께 『목회자가 포식자가 될 때』 (When Pastors Prey)라는 책을 발간했다.

응징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성착취 및 성학대(성적 및 정신적 포함), 사기 및 부패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아동보호를 보장하기 위한”<sup>4)</sup> 부분에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한다.

우리의 정책과 관행, 의사결정기구, 그리고 교회 간의 친교 내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개인적 만남이나 회의가 있을 때 성학대와 성범죄에 대한 투명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2022년 6월 15-18일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회는 11차 총회를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한다.:

우리는 11차 총회에 참여하는 직원과 자원 봉사자를 포함한 모든 총회 참가자를 위해 기안된 성착취, 학대 및 성희롱 예방 행동규범 채택 및 적용을 승인하고, WCC 회원교회와 에큐메니칼 파트너가 총회 및 사전 총회, 모든 총회 관련 모임에서 행동 규범을 존중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WCC 회원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파트너들이 여성, 어린이,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성학대와 성폭력을 포함한 그 어떤 형태의 폭력을 규탄하고, 성폭력을 죄로 선언하며 성폭력 예방 행동 규범에 명시된 지침을 성실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WCC 제네바 사무국, 회원교회 및 에큐메니칼 파트너가 성폭력과 성희롱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도 있는 조사를 보장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해자가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책 및 관행을 수립 또는 강화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우리는 WCC 회원교회와 에큐메니칼 파트너들이 성착취 및 성학대가 발생했을 때 바른 절차대로 대항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역량 구축을 위해 더욱 더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



---

4) 11차 총회 “행동규범” 2022년 4월 초안

## 총회 경험 나눔 1

조은아 청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대)

본인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 제 11차 총회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청년 총대로 참석했다. 개인적으로 WCC 총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설레는 마음, 그리고 교단을 대표하는 총대로서 참석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동시에 품고 독일로 떠났다.

27일부터 30일까지는 “청년 사전대회”(Ecumenical Youth Gathering)에 참석했다. 청년 사전대회의 주된 메시지는 ①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고(Celebrating Gifts), ②서로의 아픔과 상처들을 보듬어 주며(Visiting Wounds), ③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자는 것이었다(Transforming Injustices). 매일 진행되었던 주제 강연에서는 ‘정신 건강’, ‘정체성’, ‘이웃 종교와의 관계’, ‘성소수자’(LGBTQI+), ‘기후위기’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청년들의 현실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기도회와 성경공부, 워크숍 및 그룹토론이 진행되었는데, 대부분 청년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도로 진행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온 400여명의 청년들이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다양성과 차이를 넘어서는 일치와 화해를 경험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시간은 11차 총회로 보낼 청년들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시간이었다. 약 3페이지라는 정해진 지면에 세계 각국에서 온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작성된 초안을 한 문장씩 읽어나가면서 수정 혹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입장과 목소리를 포용하려는 노력이 참으로 귀하다고 느껴졌다. 총회로 보내는 메시지이다 보니 민족의 독립과 자신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소수민족과 원주민들, 기후위기를 누구보다 앞서 맨몸으로 경험하는 태평양의 섬나라들,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민족과 국가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거세진 혐오를 직면하는 성소수자들 등 여러 긴급하고도 절박한 이야기들이 많이 다루어졌다. 메시지를 작성하는 중 여러 세계 청년들로부터 “왜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참으로 마음이 복잡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계 자매·형제 교회에게 빛진 사랑에 대한 고마운 마음, 그리고 이 사랑을 세계 자매·형제 교회에게 어떻게 갚아야 할까? 라는 부담감이 동시에 들었기 때문이다.

한편 청년들은 총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총대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청년 총대들 가운데 생각보다 추가 후보로 총대가 되어 참석하게 된 청년들이 꽤 많았다. 교단에서 WCC에 총대 명단을 보낼 때 청년을 포함시키지 않아, WCC에서 추가로 청년 총대를 요청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번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들 중 청년의 비율은 12%였다. 이에 청년들은 WCC와 회원교회들을 향해 청년들을 “미래 세대”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로 인식할 것, 그리고 총대와 중앙위원회에 포함되는 청년들의 비율에 대하여 정해진 원칙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청년 사전대회를 마치고 31일부터는 본격적인 총회가 시작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을 뚫고 각국에서 온 약 4천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함께 모인 것을 보는 것이 평생 처음이라 신기했고 설레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각자 다른 전통을 지닌 신앙인들의

인도에 따라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순간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한 순간들이었다. 또한 일치 선언문, 메시지, 세계 공공 문제를 다루는 성명서 등을 채택하기 위한 과정에 참여하여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 결의하면서 ‘일치’와 ‘화해’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보기도 했다.

총회 일정 중, 본인은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에큐메니칼 소명”이라는 주제의 에큐메니칼 대화에 참석했고, 9월 5일(월)에 “정의로운 평화, 그리고 청년”에 대하여 발표했다. 오늘날 청년들이 왜 정의와 평화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어서 청년들의 이니셔티브 사례로 2019년 한반도에서 열렸던 청년 PJP(정의와 평화를 위한 순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①교회가 청년들을 대변하려고 하지 말고 청년들을 초대하여 직접 목소리를 들을 것, ②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청년들 스스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안전한 장을 만들고 지원할 것, ③성직자와 시니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신학적인 담론을 넘어 Local, National, Global 차원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실무자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한편, 총대로서 “회무”(Business Plenary)에 참석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자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150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하는 인선 과정에서 일어난 청년들의 항의 시위와 발언이다. WCC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위원회에서 청년들의 비율은 25%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부산 총회(2013)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도 청년 중앙위원의 비율은 13%였다. 청년들은 이것을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라고 말하면서 “현재 우리와 함께 하는 세대”로 여기지 않은 결과로 받아들였고, 자발적으로 함께 연대하여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어린이의 철없는 행동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논쟁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외교가 걸린 문제이다 보니 그 어떤 때보다 뜨거운 의견 대립이 있었다. 총회장 입구에서는 러시아를 규탄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시위가 있었고, 회의장 안에서는 러시아 대표들과 우크라이나 대표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본인은 가해자가 아니라는 입장과 러시아를 가해국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동시에 들어야 했는데, 이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다.

이 순간들을 지켜보고 함께 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졌다. 오늘날 지구촌 공동체 곳곳에 만연한 세대 간의 갈등, 민족·국가 간의 갈등,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갈등 앞에서 교회는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입장들이 발표되고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일치’와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체감했다. 그럼에도 총회 기간 내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고 고백하며 함께 고민하고 연대하는 수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서 깊은 위로와 도전을 받았다.

총회에 참석하는 동안 모든 것이 처음이라 낯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다. 하지만 오늘날 개인과 개교회, 한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류적인 위기와 과제 앞에, 세계교회들이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공교회로서 함께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자 크나큰 배움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내가 서 있는 한국 땅에서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부터 하나씩 하나씩 시작해보고자 한다.

## 총회 경험 나눔 2

이새름 청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대)

### 1. 들어가며

제9차 포르투 알레그레 총회, 제10차 부산 총회에 이어 제11차 세계교회협의회 칼스루에 총회에 감리교 총대로 참가하게 되었다. 열흘 동안 총회에 참가하며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 2. 나 정말 갈 수 있을까?

이미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해 1년이 연기되어 열리는 총회이어서 그런지 참석하기까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다. 총회가 열리기 6개월 전까지도 총회의 규모를 줄일지,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대면과 비대면 모임을 병행하여 진행할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다. 결국 5000명 규모로 이전과 같은 형식의 대면 총회가 열리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변수로 비행기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 실제로 총회 시작 직전에 같은 위원회 위원들이나 청년참가자 중에서도 불참하게 되는 분들이 있었고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1년 이상 준비해 온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다행히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무사히 칼스루에 도착할 수 있었다.

### 3. 오렌지카드 vs 블루카드

총대로 참가하면서 드디어 오렌지카드와 블루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의결방식으로 “컨세션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수결 원칙의 변형으로 안건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오렌지카드를 들어 동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블루 카드를 들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블루카드를 든 사람들을 의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총회가 1년 연기되어서 그런지 처리해야 할 회무가 상당히 많았다. 또 WCC에 속한 위원회의 보고사항들과 그에 대한 코멘트, 찬반의결까지 거쳐야 할 의결이 많았기 때문에 회의시간이 계속 연장되고 길어졌다. 블루카드를 들 일은 거의 없었지만(들려면 마이크 앞에 설 각오가 되어야 한다) 열심히 오렌지카드를 들며 회의에 임했다.

### 4. 가장 핫한 주제를 꼽자면?

이번 총회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었던 두 가지 주제를 꼽자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위기였다. 11차 칼스루에 총회는 세계교회협의회 첫 총회인 읍살라 총회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열리는 두 번째 총회였다. 세계교회협의회가 탄생한 대륙이자 세계기독교 역사의 중심이 되는 유럽도 전쟁과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칼스루에 총회에서 많은 교회와 교단들은 무고한 인명의 희생을 참담해 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탄했고 세계교회협의회도 공식선언문을 통해 전쟁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불의한 것임을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세계교회협의회 정식 회원교단은 아니었지만 참석하여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 나누었고 러시아 정교회에서도 대표가 참석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 더욱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못내 아쉬우면서도 세계교회협의회가 국가 대 국가가 아닌 교회공동체 내에서 대화의

완충지대를 제공하는 것도 그 나름의 필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을 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 또한 아주 뜨거웠다. 청년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캠페인을 주도하였고 세계교회협의회도 기후위기에 대한 교회의 성찰과 환경운동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주제강연은 기후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임을 역설하며 인간의 무절제한 소비와 방종에 대한 회개를 촉구했다.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죄지은 모든 존재들에 대해 용서를 구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패널로 참가한 선주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그들은 삶의 터전이 어떻게 파괴되어 가고 있는지를 나누었고 다시 한 번 기후변화와 재난은 어느 개인이나 일부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의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 5. 메시지 위원회

나는 이번 칼스루에 총회에서 메시지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총회가 끝날 때마다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총회의 내용과 과정, 협의의 결과 등을 담아 회원교단에게 서신의 형식으로 2-3장 분량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를 작성하는 곳이 바로 메시지 위원회이다. 대략 30명 정도의 위원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핵심그룹이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총회종료일 전까지 메시지를 작성하게 된다.

메시지의 모든 문장은 한 줄, 한 줄이 총회의 역사이자 세계교회에 전하는 서신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성별, 나이, 인종, 국적, 교단을 가진 사람들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문장을 다듬는다. 서기가 한 문장을 읽으면 그 문장 한 줄마다 컨센서스 절차를 진행한다. 읽은 내용을 다듬고 단어를 가감하고, 어순을 바꾸고, 문법을 교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구절의 인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신학적 문제는 없는지도 검토한다.

시간과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주말과 점심시간을 모두 반납해야 했지만 총회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영광이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었는데 청년이 단 둘뿐이라는 것과 인종구성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유럽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위원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아시아 사람은 공교롭게도 나 하나였다. 언어의 문제가 있더라도(영어로 작성하기 때문에 영어사용국가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다) 내용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 6. 아쉬운 점

가장 아쉬웠던 점은 바로 청년과 여성의 참여이다. 이번 중앙위원의 여성 비율은 41%로 여전히 50%에 미치지 못했다. 매년 총회 때마다 청년 중앙위원의 비율을 25%까지 권장한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150명 중 19명이 선출되어 13%에 그쳤다. 놀라운 사실은 청년 중앙위원 19명 중 14명이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중앙위원회의 성비량은 정반대이다. 소수자 쿼터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여성, 청년을 추천하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물론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여성, 청년이 중앙위원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구색 맞추기 없이도 자연스럽게 여성 50%, 청년 25% 비율이 맞춰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 7. 나가는 말

이전까지 나의 총회 참석은 바깥에서 “참관”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총대로 “참여”함으로써 예전에는 보지 못한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의 경험이 내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써 다음 총회 참가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 그럼에도 여성이 희망입니다

최은영 목사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사무총장)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만물’을 뜻하는 ‘오이쿠메네’ (oikoumene)의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의 흩어진 모든 교회의 일치와 공동선교를 도모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대표적 기구입니다. 1948년 암스텔담 제1차 총회를 시작으로 최근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9년 만에 제11차 총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계교회 관계자들이 대면으로 준비했으며 전 세계 350여 개 회원교회 4,000여 명이 참석하였고 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여신학자협의회와 NCCK여성위원회 소속으로 여러 배려와 지지를 받으며 참석하고자 했으나, 코로나 확진이 되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여남 사전대회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자가격리 후 바로 간 독일 칼스루에라는 낯선 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비판적 시각도 있었으나, 세계교회들이 만나는 에큐메니칼 현장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회원교회인 예장통합, 감리회, 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의 8명 총대를 비롯해 일반 참가자인 방문단과 유럽 지역의 디아스포라 한인 교계 지도자와 성도들이 약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여성참가자들도 40명이 넘게 참가하며 그 어느 총회보다 높은 에큐메니칼 여성, 특히 청년의 참여와 관심은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여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아시는대로 이전 제10차 총회는 2013년 부산에서 했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되는 한국에 있어서 이미 통일을 이룬 독일에서의 총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Christ's love moves the world to reconciliation and unity)’는 주제로 섰부른 화해나 일치가 아닌 영어의 ‘move’를 상기하며 움직임에 더 의미 있었습니다. 실제로 곳곳에서 있었던 역동적인 춤과 음악은 감동을 더해 주었습니다.

성, 인종, 지역, 국가, 배경 등이 다른 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주제강연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는 주제강연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과 내전, 기후위기,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가난, 불평등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에서 새로운 희망과 책임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총회 현장은 교회가 응답해야 하는 많은 이슈와 때론 갈등이 있다 해도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서로를 응원하며 연대하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었습니다. 돔 형태의 천막을 중심으로 아침예배와 저녁기도회가 이뤄지는가 하면 가까이 네 곳의 식당 및 카페테리아가 운영되었고, 에큐메니칼 대화모임이나 워크숍 등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이뤄졌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칼스루에 곳곳에 WCC총회를 알리는 깃발과 안내판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낯선 이를 환대하는 행위였고 환대받는 느낌이 컸습니다. WCC 총회는 참여자들이 주저 없이 다가가 대화하고, 서로 도움과 도전을 주는 독특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WCC는 저에게 새로움을 전해 주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눈으로 혹은 약자의 시선으로 발견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RPF(Rainbow Pilgrims of Faith)라는 성소수자를 환대하는 그룹이 조용하지만 힘 있게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주변으로부터의 환대』라는 책은 1년 전부터 준비되어 1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해졌습니다. 이를 논쟁의 중심에 세우는 한국교회와는 다르게 에큐메니칼대화 속에서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교회 소속이라고 소개하는 한 분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는 했지만, 열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여한 것 자체가 의미 있고 그렇게 조금씩 틈을 내고 그 사이의 빛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그 한 예로 브루넨이 있습니다. '우물'이라는 뜻의 독일어, '브루넨'은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먹거리의 원천인 물을 제공하고 서로 만나 대화하는 장소의 의미가 큼니다. 지난번 한국에서 열린 제10차 총회에서 '마당'이라는 부스를 사용한 것과 유사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100여 개의 브루넨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을 접하였는데, 아프리카 여성신앙단체(Pan African Women Faith)에서 만난 한 여성은 신학자로 현재 송도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세상이 참 넓고도 좁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여성들 중 현대적인 한복을 입고 다닌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지역에서 자신의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니는 여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격려하기도 하면서요. 특히 자랑스러웠던 것은 한국교회를 대표해 여러 여성들이 총회 참석뿐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한 배현주 목사님, 발제자와 패널로 참여한 김은하, 오현선, 정희경 목사님, 그 외에도 총대와 스태프 등 조은아, 이새름, 김서영, 우경아, 허주미 등입니다. 다양한 소속감을 갖고 참여한 한국여성들이 이국땅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우정과 연대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이들로 그 자리와 역할이 더 주어지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WCC총회는 특히 사회적 약자로서 고통받는 여성들이 폭력과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성(性)평등에 관심을 갖고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총회 기간 중 에큐메니칼 대화, 사전대회, 브루넨 등에서는 여성의 안전과 인권에 관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상징적인 운동은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연대와 회복의 의미를 담아 목요일마다 검정색 옷을 입는 '검은 목요일 캠페인(Thursdays in Black)'입니다. '검은 목요일 캠페인'은 WCC의 성폭력과 젠더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지난 1988년 'WCC 여성연대 10년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독재정권 하에 실종된 여성 가족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여성들, 인종대학살 시기 강간에 저항했던 르완다와 보스니아의 여성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정책과 폭력에 저항한 여성들이 큰 힘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번 총회 기간에는 각 회원 교회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연대와 저항의 메시지와 상징을 담은 직조물(tapestry)을 브라질 예술가인 제닌 마르자 슈나이더가 폭포 형태의 대규모 작품, '연대와 저항의 폭포(Waterfall of Solidarity and Resistance)'로 만들어 행사장에 전시했습니다.<sup>5)</sup> 주회의장 벽 한 면을 차지해 많은 이들이 찾는 포토존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말 순례프로그램이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80여 곳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미리 신청하여 간 프랑스 바흐(Barr)는 매우 생소한 곳이었지만, 여성프로그램의 성격답게 현지 교회여성들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마련된 세계기도일(WDP) 기획전시전에 참가하였는데, 세계 여러 분쟁이 있는 국가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조각보 장식물 중 Corée(한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 'Thursdays in Black'이 함께 전시되어 있어 우리 총회 장소에 걸린 Tapestry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후에 이 사진을 안내하신 Christine 목사님께 보내드렸더니 프랑스 WDP총회에 소개하겠다는 답신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특히 여성의 인권과 성장을 지지하기 위해 결성된 한국의 '움트다'라는 단체가 제작해 판매한 목회자용 '로만 칼라'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움트다'의 '로만 칼라', 일명 '

5) 총회 전 7월 21일 NCKK 여성위원회에서 '여성주의시각에서 드리는 에큐메니칼예배'를 주관했고 예배에서 그 뜻을 새기며 참여한 이들이 하나씩 조각을 붙여 만든 모자이크작품을 보냄.



로멜라 칼라'의 판매 수익금은 파키스탄장로교회 여성 목사 로멜라를 지지하고 후원하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로멜라는 파키스탄장로교회에서 두 번째로 목사 안수를 받은 여성이지만 교단 내에서도 뿌리 깊은 남녀 차별 속에서 강단에서 설교조차 할 수 없던 중에 그녀는 스스로 목회자임을 드러내는 칼라를 만들어 입고 다녔고 이를 한국의 '움트다'에서 알게 되어 허락받아 로멜라 칼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로멜라가 이번 총회에서 WCC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중앙위원에 선정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선두에 있는 WCC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총회를 개최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세계교회의 성도들이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CC 총회를 통해 세계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에큐메니칼 정신을 공유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여성단체에 속한 한 사람으로 이러한 경험을 한국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봅니다. 무작정 한쪽으로 몰고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뒤로하고 힘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고 연대감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 말과 이론보다 전쟁을 반대하고 기후정의, 경제정의, 젠더정의를 실천하려는 행동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여성지도력의 확장은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총회 참관기 2

### “2013년 신학생으로 부산총회에 참가한, 2022년 활동가가 경험한 WCC 총회”

이은재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활동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

#### 1. 2013년 부산총회

12년도에 신학대학을 입학했던 나는 운이 좋게도 13년 부산총회를 경험할 수 있었다. 부산에서 열리는 WCC 총회로 그 해 학교에서는 에큐메니칼 관련 수업이 많이 개설되었고 비록 학부 2학년생이었지만 WCC나 에큐메니칼 신학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의치 않았다. 감사하게도 KSCF와 연결되어 WCC 총회에 갈 수 있었다. 당시 KSCF와 WSCF 공동주관으로 파주에서 평화 심포지움을 진행했고, 한국의 기독교청년들과 WSCF 멤버들과 함께 일주일은 파주에서, 나머지 일주일은 부산 총회에서 함께 일정을 소화했다.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약 2주 정도 수업을 결석하게 됐고 학교 측의 공결 처리나 지원은 받지 못했다. WCC에 관심이 있더라도 참여하지 못한 큰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대학원생 중심으로 GETI나 KETI로 소수 인원에 선발되지 않는다면 참여 방법을 알 길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참여하더라도 수업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가게 되는 상황이었다. 여하튼 갔고, 보았다. 청년 사전대회와 여성 사전대회는 신학생이었던 나에게 큰 도전과 사명의식을 주었고 뒤이은 개막식에서 재를 뒤집어 쓴 퍼포먼스와, 함께 부른 센제니나(무얼 했나) 찬양은 충분히 감동적이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명, 정의, 평화라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마냥 신기했다.

#### 2. 2022년 칼스루에 총회

그리고 독일 칼스루에에서 열린다는 총회의 소식을 들었다. 학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총회에 참여하는 것은 역시나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부산 총회의 기억과 경험이 앞으로 있을 모든 난관을 뛰어넘을 만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감리회 선교국의 숙식 지원이 없었다면 가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2022년 칼스루에 총회는 외부에서 반대시위가 들끓었던 부산총회에 비하면 안전했고, 평화로웠다. 결론을 말하자면 2022년 칼스루에 총회 자체에서는 2013년 부산 총회에서 당시 내가 느꼈던 희열과 감동을 느끼지 못했다. 이번 총회에는 감리교 청년 활동가들과 정말 열심히 ‘참가’했다. 부스를 지키는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그 말인즉슨 내가 하는 만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기에는 내 준비가 부족했다. 교회성폭력 근절 운동을 하고 있으니 교회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해외 교단 사례나 현황, 실무자들과의 만남을 조직했거나, 한국의 상황을 번역해 자료를 만들어 오거나 내가 하는 운동들을 소개하는 영어 리플렛을 만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2013년 신학생이던 때와, 2022년 단체 활동가로 참여하는데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마냥 신기했던 2013년과는 달리 칼스루에에서는 총회 안에서의 주제회의에서는 그다지 감명을 받지 못했다. 2013년에 감동받았던 생명, 정의 평화라는 거대 담론이 피상적으로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나에게는 어떤 ‘생명’, 누구를 위한 ‘정의’, 어디에서의 ‘평화’인지가 무척 중요해진 것 같다. 그래서인지 주제회의보다는 브루넨 워크숍이나 티타임 교제를 통해 얻는 것이 더 많았다. 기대하고 들어간 워크숍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이미지, 하나님의 여성

적 이미지를 나눌 때는 80년대 여성신학을 아직도 얘기하나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특별히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다루는 워크숍과 대화모임에서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경험했다. 젠더와 섹슈얼리티 주제는 국가별·교회별로 천차만별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모임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긴장한 모습이 보였다. 우리 각자 개인은 신앙의 순례자이고 이 여정 가운데 서로 마주칠 때만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 마주침의 핵심은 안전한 공간에서의 솔직한 대화라는 진행자의 절절한 고백에 모두가 숙연해지고 엄숙해졌다. 그런 진행자의 고백은 그 공간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 태도에서 빛이 났다. 다양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신앙의 순례 길에서 서로 '만나' '대화'하는 '여정'이 WCC가 가진 힘이겠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상황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 “우연한 연대”

이정규 전도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참가자)

지난 9월 독일 칼스루에에서 개최된 제11차 WCC 총회는 약 9일 동안 진행되었다. 이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으나 나의 위치를 돌아보고 협소한 관점을 넓히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귀국 후 여러 경로로 총회 경험들을 훑어볼 수 있었으나 생각해보면 그 영향을 누가 주었는가는 살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WCC에 참가하며 느낀 점과 함께 그 영향을 준 사람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총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을 꼽으라면 개회 기도회와 기후 행진 그리고 한국 에큐메니컬 모임을 꼽곤 했다. 그러나 이 순간들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크고 작은 순간들이 모여 큰 울림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연한 연대’이다. 총회에 준비된 여러 브루넨 중 ‘교회와 신앙공동체의 신학, 전례, 구조와 삶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가부장제와 여성에 대한 폭력(Patriarchy and violence against women as a challenge for theology, liturgy, structure and life of churches and faith communities)’에 참여한 적이 있다. 먼저 발제자가 가부장성이 만연한 교회의 현실과 폭력 문제에 관해 설명해주었고 이후 조를 이뤄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미숙한 영어 실력으로 그곳에서 오간 모든 논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우리 조 또한 다양한 질문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었다. 그중 기억에 남은 질문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이다. 답은 가지각색이었다. 누군가는 자궁이 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누군가는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 접하는 예수(수염이 풍성한 성인 남성)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하였다. 이때 나는 이 말을 듣고 교회 학교에서 교육할 때 성을 뛰어넘는 존재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치기 힘들음을 공유했다. 교단이 제공하는 자료와 인터넷에서 구한 교육자료들 대부분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남성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조원이 곧 ‘잠시만’이라고 말하며 사진 한 장을 보내주었는데 바로 하얀 한복을 입고 십자가 진 여성 그림을 찍은 사진이었다. 여성이 진 십자가의 가운데에는 금이 있는데 이는 3.8선을 의미하고 그녀의 모습은 여성이 분단된 한반도 상황을 지고 나아감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가 나에게 공유한 것처럼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여성 예수의 모습을 찾아 언어를 만들고 이런 자료들을 늘 공유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럴 때 가부장적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벗겨내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처음 만난 여성이 한국의 여성 예수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놀라움과 함께 그 순간 무언의 연대를 느꼈다. 브루넨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가 입으로 연대를 말한 적은 없으나 나는 연대를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이날 처음 만나 앞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불확실함에도 인생 선배로서 같은 여성 참가자를 도와주려는 적극성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그녀는 모든 토의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우리에게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총회에 참가하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만남을 가졌다.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참여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가졌던 무수한 만남 중 브루넨에서 만난 이 인연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때 그들 덕분에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사진을 공유해준 조원과 이야기를 들어준 조원 덕분에 편하게 생각하는 바를 나눌 수 있었고 또한, 배울 수 있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경험한 연대는 그 순간 안전함이 된 동시에 나에게 하나의 지향점이 되었

다. 사진을 핸드폰에 담았듯 이 경험을 마음에 담아 나 또한, 여성의 연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브루넌에 함께한 조원이 보내준 사진>



MEMO



MEMO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